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 차운시(次韻詩) 연구*

노 성 미**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의 특징 |
| 2. <제가야산독서당> 시석(詩石)의
고증 | 1) 경관을 드러내는 방식
2) 은둔의 가치에 대한 표현 |
| |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치원(857-?)의 은둔지인 가야산 홍류동의 시석(詩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경관과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치원은 가야산에 입산하여 독서당에 은거하면서 이 시를 짓고 계곡의 암반에 새겼다. 독서당과 시석(詩石)은 홍류동 경관에 상징을 부여하고 최치원에 대한 기억을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을 했다.

본 연구는 홍류동에 대한 현장조사와 이를 둘러싼 문헌고증을 통해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에 대한 학계의 오류를 바로 잡았다. 시석의 정

* 이 연구결과물은 2016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경남대학교

확한 존재 양태를 정의하기 위해 <가야산유람록> 등의 기행문과 가야산을 읊은 시,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를 참고하였다. 홍류동에는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이 두 개 있다. 원 시석은 최치원 필적으로서 현재 치원대(致遠臺)로 불리는 곳에 해서체로 새겨졌다. 이 시석은 오랜 세월을 지나며 글자가 마멸되어 네 글자 정도만 알아볼 수 있었던 상황이 16세기 문헌까지 확인된다. 이후 우암 송시열이 초서체로 시를 다시 썼고 이것이 농산정 건너편 석벽 시석이다. 해인사 승려 중에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각승(刻僧)이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는 60여 편이다. 문집에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농산정 현판과 홍류동의 바위에도 14편이 전한다. 가야산 문화경관에 대해 읊은 수많은 시 중에서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는 최치원의 시석(詩石)을 창작의 원천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에는 최치원에 대한 인식과 홍류동 문화경관을 바라보는 태도가 잘 나타난다. 차운시는 홍류동 경관을 바라보는 태도와 은둔의 가치에 대해 표현한 것으로 크게 분류된다. 경관을 바라보는 태도는 객관세계로서의 홍류동의 자연과 선계(仙界)로 표상되는 관념적 경관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은 홍류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체화하고 최치원의 선화(仙化)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은둔의 가치에 대한 표현은 은둔에 대한 공감의 태도와 비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구분된다. 이들 차운시는 시석과 홍류동 문화경관에 대한 해석이며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의미 해석과 최치원에 대한 기억의 재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주제어 : 최치원, 홍류동, 문화경관, <제가야산독서당>, 시석(詩石), 차운시(次韻詩), 은둔

1. 머리말

가야산은 『삼국사기』 권46, 열전 <최치원>에 최치원의 최후 은둔지로 기록된다. 가야산의 홍류동은, 농산정(籠山亭), 고운최선생둔세지(孤雲崔先生遁世地), 가야산홍류동고운제시석처(伽倻山紅流洞孤雲題詩石處), 치원대(致遠臺), 독서당(讀書堂), 가야서당(伽倻書堂), 암벽의 시석(詩石) 등을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경관¹⁾을 이루고 있다. 홍류동 문화경관은 최치원의 은둔과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이 기반이 되어 형성되었으며, 최치원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시 창작의 원천 소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홍류동 문화경관은 그의 최후 은둔과 관련된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먼저 현장답사와 문헌고증을 기반으로 하여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의 존재 양태를 정확하게 고증할 것이다. 이로써 이 시석을 원천으로 하여 홍류동 문화경관이 형성되고 최치원 담론이 생산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것은 이후 홍류동 문화경관의 형성과 그곳에서 창작되는 차운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개별 차운시의 의미 해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다음으로 60여 편에 달하는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를 유형 분류할 것이다. 차운시의 창작은 최치원과 홍류동 문화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들 시편에 대한 연구는 홍류동 문화경관과 최치원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를 해석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차운시를 경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경관에 대한 시각은 객관적 자연경관과 주관적 심상으로서의 경관으로 구분할

1) 문화경관의 사전적 의미는 문화집단이 지표상에 이룬 인위적인 공간으로 인간집단이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형성한 가시적인 물질문화를 말한다.

것이다. 또 은둔에 대한 가치를 표현한 시들은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공감을 표현한 시와 비판적 관점을 표현한 시로 유형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차운시를 유형화하는 것은 개별 작품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2. <제가야산독서당> 시석(詩石)의 고증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은 <황산강임경대(黃山江臨鏡臺)> 등 29수의 시와 함께 『동문선』에 전한다. 이 시는 최치원이 가야산 홍류동의 독서당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이므로 그에 따라 제목을 붙인 것이다. 『삼국사기』에 가야산은 최치원의 최후 은둔지로 기록²⁾된다. 장일규(2004: 77-78)는 최치원이 895년부터 해인사 중창 기문을 지었으며, 898년 정월 이후 이미 입산한 진성왕을 좇아 가족을 이끌고 해인사에 은거한 것으로 보았다. 해인사에서 900년부터 904년까지 『법장화상전』 등의 화엄승려의 전기를 찬술했으며 908년 11월 이재의 부탁으로 <신라수창군호국성팔각등루기>를 지은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저술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최치원이 908년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설에 최치원은 홍류동에서 선화(仙化)했다고 했으며, 이로써 후세 사람들은 홍류동에서 현실과 상상세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했다. 따라서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의 존재 양태에 대한 정확한 고증은 차운시를

2) 『삼국사기』 권46, 최치원에 “치원은 서쪽에서 당나라를 섬길 때부터 동쪽으로 고국에 돌아와서까지 모두 난세를 만났다. 머무는 자리를 계속 옮겨야 했고 움직일 때마다 비난을 받았다. 스스로 불우함에 상심하여 다시는 벼슬에 나아갈 뜻을 두지 않았다.(중략) 마지막에는 가족을 이끌고 가야산 해인사에 들어가 모형인 승려 현준과 정현사와 더불어 인연을 맺고 도우가 되어 은거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했다.

통해 표현된 다양한 세계상을 해석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에 대한 정확한 고증 없이 그 실체에 대한 오해를 되풀이했다. 이석해(2005: 70)는 “농산이라는 시구가 있는 칠언절구 가야산독서당이 맞은 편 석벽에 새겨져 있다.”고 하였고, 이구의(2008: 16)는 “농산정 건너편에는 치원대 또는 제시석이라 불리는 석벽이 있고 그곳에 고운의 칠언절구 둔세시가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시석의 위치도 실체도 실상과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 이석해의 오류는 농산정의 연원에 대한 이해 없이 관광자원으로서의 홍류동 경관만을 대상으로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구의는 최치원의 시석과 치원대에 대한 이해 없이 이석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박동백(2013: 13)은 홍류동 시석과 석벽의 시석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글씨 또한 동양 최고의 명필로 알려졌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문장의 깊은 뜻과 필치의 뛰어남을 알지 못하고 방치 상태로 망가져 감을 보고만 있다.”고 하면서 농산정 맞은편 시석을 최치원 친필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가야산독서당>을 <홍류동 석벽제시(石壁題詩)>로 명명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허돈(1586-1632)의 <유가야산기>(1625년) 등은 최치원의 발자취를 찾은 가야산 유람록³⁾이다. 그 중에서 최홍원(1705-1786)의 <유가야산록>(1757)에는 “서쪽으로 높은 대에 오르니 이른바 학사대이다. 고운이 손수 심은 소나무는 이미 말라버리고 다만 그 흔적만 남아 있었다. (중략) 노비에게 명하여 네그루의 작은 소나무를 캐어 그 곁에 심으라고 했다. 뒷날 이 대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청빈한 선비가 특별히 최 학사가 한 것을 배웠구나.’라고 할 것이다.”⁴⁾라고 하여 학사대의 의미를 기록했다.

3) 이중무의 『가야록』(1625), 신필청의 『유가야산록』(1681), 정식의 『가야산록』(1821), 권섭의 『유가야산기』(1711), 유척기의 『유가야기』(1712), 이덕무(1741-1793)의 『가야산기』, 최홍원의 『유가야산록』(1757), 하진태의 『유가야록』(1760), 문해구의 『유가야산록』(1803), 문정유의 『유가야기』(1821) 등 많은 가야산 유람록이 있다. 이들 유람록은 홍류동을 최치원의 자취를 확인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가야산 홍류동은 최치원의 은둔처로서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은 가장 중심이 되는 최치원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홍직필(1776-1852)은 “고운 시 이미 좋은데/ 남쪽 개울의 필적 더욱 기이하네./ 두 가지 훌륭한 점 모여 이루어진 곳/ 가야산이 이로써 귀중한 산 되었네.”⁵⁾라고 했다. 최치원의 시석과 우암 송시열이 석벽 시석이 모여 가야산을 더욱 귀중한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의 존재 양태를 알려주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동국여지승람』 권30의 ‘경상도 합천 고적’이다. 『고운선생사적』 ‘해인사’에 “가야산 서쪽에 있다. 신라 때 창건되었는데, 최치원의 서암(書巖)과 기각(基閣)이 있다.”라고 하고, ‘제시석’에 “해인사 골짜기를 세상에서는 홍류동이라고 부른다. 골 입구에 무릉교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절을 따라 5, 6리쯤 가면 최치원의 제시석이 있다. 후세 사람들은 그 바위를 일러 치원대(致遠臺)라고 한다.”고 했다. 또 농산정에 “故敎流水盡籠山’라는 고운의 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컬은 것이다.”라고 했다. 이때의 시석은 농산정 앞 계곡의 암반에 해서체로 새긴 최치원 친필의 시석을 말한다. 시석이 있던 자리가 치원대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로써 최치원을 표지로 하는 유적이 해인사와 홍류동, 시석으로 압축되고, 제시석이 치원대로 명명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에 “농산정 정자 뒤로 몇 걸음 떨어져서 고운의 영당(影堂)이 있다. 그리고 현재 정자 앞에 비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독서당의 영당이 퇴락하고 농산정 앞에 시석 유적 표지석을 설치하는 현장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을 통해 독서당과 영당, 농산정과 치원대 등으로 홍류동 문화경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그 비석은 농산정 앞의 ‘고운최선생둔세지’ 비석임을 알 수 있다. 비문에 “이곳은 신라 말의 거유

4) 최홍원, 『백불암집(百弗庵集)』(대보사, 영인본)

5) 紅流洞石壁見以尤翁筆刻崔孤雲詩口呼一絕: 孤雲詩已好 南澗筆尤奇 兩美湊成處 伽山重以之(『梅山先生文集』 권1)

(巨儒) 고운 최치원 선생이 은둔하던 곳이다. 원 정자의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며, 지금의 것은 고운 선생의 후손과 유림에 의해 1936년에 중건된 것이다.”라고 했다.

한강 정구(1543-1620)의 <유가야산록>(1579년)에도 “최고운의 시 한 수가 폭포 곁의 바위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장마철이면 물이 몰어나 소용돌이치며 바위를 깎아내는 바람에 지금은 더 이상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한참 동안 더듬어야 어렵듯이 한두 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⁶⁾라고 했다. 옥소 권섭(1671-1759)은 <유가야기>에서 “고운이 일찍이 ‘狂奔疊石吼重巒...’라는 시를 짓고 손수 물 가운데 평평한 바위에 썼지만 여물물이 사납고 새긴 것이 깊지 않아 이미 다 마멸되고, 다만 ‘狂奔 故教’ 녀 자만 분별할 수 있는데, 우암 선생이 계곡 북쪽 바위 사이에 다시 그 시를 모사해 새겨놓았다.”고 했다. 정식(1664-1719)은 <가야산록>에서 “글씨는 우암(尤庵) 송시열이 쓴 것이다. 승려가 시내 가운데 돌에 최치원의 친필이 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마모되었으므로 이곳에 옮겨와 다시 새긴 것이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다. 이상의 정황들을 분석하면 16세기까지 최치원 시석의 존재가 확인되며 송시열(1607-1689)이 다시 초서체로 써서 농산정 맞은편 언덕에 새긴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에 비해 낙관의 서체가 약하고 이질적인 느낌이 있다. 이것은 우암의 글씨임을 밝히기 위해 시차를 두고 후낙관을 새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96년 3월에 세운 ‘가야산홍류동고운제시석처’ 비석에 새긴 가산 이지관의 글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 내력에 의하면 무릉교 등 홍류동 13명소의 명명한 사람이 최치원이며,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홍수와 미친 듯 흐르는 물줄기로 인하여 거의 마멸되고 기구인 ‘狂奔’ 두 글자와 결구인 ‘故教’ 두 글

6) 『한강문집』 권9에 수록되어 있다. <유가야산록>은 1579년(선조 12)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약 15일간에 걸쳐 이루어진 가야산 등반노정을 기록하고 있다.

자만 희미하게 남아 있으므로 우암 송시열이 농산정 맞은편 문창후 유허비 북쪽 해인사로 올라가는 오른쪽 암벽에 자필로 이 시를 새겨 두었는데 대부분의 인사들이 이를 고운의 진짜 필적으로 잘못 알고 있으므로 기자가 본 위치를 찾아 희미하게 남아 있는 녀 자를 다시 깊이 파고 후인들의 산견을 없애고자 이 비를 세워두는 바이다.”라고 했다. 이로써 시석의 원래 위치가 농산정 앞이며, 마멸이 심하여 겨우 네 글자만 남은 것을 후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깊이 파서 물증을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시석 모습은 종현 스님의 『보장천추』(2015: 55)에 사진 자료가 전한다. 사진에 보면 홍류동 평평한 바위에 방형의 틀을 음각하고 그 안에 글자를 새겼다. ‘狂奔’과 ‘故敎’가 반듯한 해서체로 또렷하게 남아있다. 원래 희미한 글자를 증명을 남기기 위해 더 깊이 파서 형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는 기록에서 보듯이 남은 글자 이에 인위적인 힘을 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위낙 글자가 마멸되어 그 위에 시대를 달리하여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흔적이 있다.

홍류동에는 바위마다 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특히 농산정 앞에서 건너편으로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환선대(喚仙臺)에는 관직 이름과 함께 많은 인명을 새겨 놓았다. 이호윤(1777-1830)은 <유가야산록>에서 “조정 인물의 반이 여기에 있다”⁷⁾고 표현했다. 정식의 <가야산록>에는 “해환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바로 새기는 일을 하는 승려 각승이다. 나의 당호와 성명을 홍류동의 바위 면에 새기었다.”⁸⁾고 되어 있다. 이로써 해인사에는 바위에 글자를 새기는 각승(刻僧)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북으로 나오니 곧 홍류동(紅流洞)의 바깥 주막이다. 중류의 지주석에는 크게 홍류동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또한 이순상의 글씨이다. 내가 그 이름이 돌과 잘 어울리는 것에 감탄하였고, 또한 맑은 경치가 제대로 이름을 얻은 것을 기뻐하였다...한 모퉁이를 돌아 나가자 겹겹이 쌓인 돌 표면은 모두 청운의 귀한 객이 이름을 새기고 쓴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돌 면에 조정 인물의 반이 다 있다.’라는 것이다.”(『진천집(進川集)』)

8) 有海環僧 乃刻僧也 刻余堂號姓各於紅流石面(『明庵集』)

가야산 홍류동 문화경관은 최치원이라는 역사인물에 대한 의식적 경험과 연결된다. 따라서 최치원의 유적 또는 그와 관련된 가시적 모든 현상들은 후대인의 문화가 물질적·실제적으로 그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3.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의 특징

최치원은 해서체의 반듯한 글씨로 홍류동 암반에 <제가야산독서당> 시를 새겼다. 이것은 홍류동 문화경관이 형성되는 출발점이다. “세상의 시비야 산을 시켜 차단했지만 오히려 시가 빛남으로써 세상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⁹⁾고 한 황현의 말처럼 이미 홍류동은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으로 인하여 최치원의 상징 공간이 되었다. 따라서 가야산, 홍류동, 해인사, 농산정 등을 소재로 한 수많은 시들 중에서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는 최치원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는 문헌에 전하는 50여 편¹⁰⁾ 농산정 현판에 전하는 9편¹¹⁾, 홍류동 계곡의 암반에 전하는 5편¹²⁾ 등 모두 60여 편에 달한다.

9) 『농산정에서 판상의 운자를 빌려 짓다』(『매천집』 권1). 이 시는 ‘己丑稿’라 한 것으로 보아 1889년(고종 26) 그의 나이 37세 되던 해에 홍류동을 유람하고 지은 것이다.

10) 문헌에 전하는 차운시는 김종직(1431-1492), 주세붕(1495-1554), 기대승(1527-1572), 송광연(1638-1695), 최홍원(1705-1786), 박윤목(1771-1849), 송달수(1808-1858), 이견창(1852-1898)으로 시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11) 농산정 현판으로 전하는 차운시는 김규태, 노상동 등 현대 작가가 지었다. 농산정의 창건 연대는 분명치 않고 1936년 정자의 흔적만 일부 남아 있던 것을 복원하기 위해 농산정중수기성회가 조직되었다. 1938년과 1952년 두 번에 걸친 중수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1990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172호로 지정되었다.

12) 홍류동 계곡과 석벽 시석 주변에 새겨놓은 차운시는 회암 정혜(1685-1741), 불초자 공생 희(不肖子 工生 羲), 최영석, 장석운·장백영 등의 작품이 있다.

이들은 원시의 기, 승, 결에서 ‘巒, 間, 山’을 운자로 삼았다.

차운시의 특징은 홍류동 문화경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가치 평가의 차이에 따라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각 유형의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을 드러내는 방식

(1) 객관적 경관의 재현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는 홍류동 경관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객관적 실경으로서의 경관을 재현한 시와 주관적 심상의 구현으로 경관을 표현한 시로 유형화된다. 이들 시는 최치원이나 <제가야산독서당>의 주제의식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고 대상으로서의 경관 자체를 드러내는 데 중점이 있다.

가장 먼저 지어진 차운시는 김종직(1431-1492)의 <고운의 운자를 써서 시석에 부치다>이다. “맑은 시의 광염은 푸른 봉우리에 쏘이고/ 먹으로 쓴 흔적은 새긴 바위에 희미하네./ 세상에서는 단지 신선되어 떠났다이름 뿐/ 빈산에 무덤이 있음을 알지 못하네.”¹³⁾라고 하였다. 최치원의 시석을 바라보고 지은 것이다. 시인은 홍류동의 푸른 봉우리들과 하나의 경관을 이루고 있는 시석을 보며 시의 광염을 본다. 그리고 시석에 남은 먹의 흔적을 좇아 생동하는 객관세계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주(1599-1669)의 시¹⁴⁾는 최치원의 시석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뽕죽뽕죽 솟은 바위 높고 높은 산봉우리/ 어지러이 굽이치며 돌 사이로 흘러가네./ 학사의 명성 조각들에 남아 있어/ 가야산 승사가 못 산 중에 으뜸이네.”라고 하여 시석을 굽이치며 돌아가는 물줄기와 주변의 풍경을

13) 題詩石用孤雲韻: 淸詩光燄射蒼巒 墨漬餘痕闕泐間 世上但云尸解去 那知馬鬣在空山(『佔畢齋集』 권14)

14) 次崔孤雲韻: 矗矗危巖立立巒 亂流經緯過其間 學士盛名餘片石 伽倻勝事冠諸山(『學稼齋先生文集』 권1)

그리고 있다. 임방(1640-1724)은 “홍 일어 병든 몸 이끌고 가을 산 들어
가니/ 이내 몸 자주색 비취색 이내 사이 서있네/ 돌 위에 늙은 소나무
있고 소나무 아래 물 흐르는데/ 중과 함께 석양 물든 산을 마주하네.”¹⁵⁾
라고 했다. 작가와 동행한 스님과 나란히 석양을 바라보는 풍경화가 시
속에 그려진다. 그 풍경 속에는 붉게 물든 가을 산의 화려한 색조와 절
벽 위의 소나무, 그 아래로 흐르는 홍류동의 세찬 물결이 있다. 최치원에
대한 환기는 없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경관에 취해 있는 두 나그네가 있을
뿐이다. 이진명(1663-1722)도 “오래된 비로전은 못 산들이 감싸고/ 학사
는 수석 사이 시를 남겨두었네/ 슬프다 선선의 자취 찾을 곳 없고/ 밝은
달만 길이 남아 청산을 비추네.”¹⁶⁾라고 하여 최치원이 남긴 시석의 모습
과 그곳을 비추는 달빛의 고요를 사실적으로 재현했다. 김익(1723-1790)
은 “아홉 굽이 맑은 시내 첩첩 산을 감싸”고 있는 풍경과 봄이 오자 곳
곳마다 기이한 감상거리가 있어 마치 “거울 속 요화요 그림 속 산”¹⁷⁾으
로 보인다고 했다. 봄날의 생동하는 경관을 객관적으로 재현했다. 송병
선(1836-1905)의 시¹⁸⁾에서도 끊어질 듯 이어진 창애가 못 산들과 맞닿
아 있고 온갖 샘물이 팔팔 솟아 그 사이를 흘러가는 눈앞의 풍경을 실경
산수화처럼 그려내고 있다.

홍류동 바위에 새겨진 시편에도 이와 같은 유형이 있다. ‘불초자 공생
회(不肖子 工生 義)’라고 낙관을 새긴 시다. 이 시는 홍류동을 사이에 두
고 농산정과 마주한 도로 언덕에 있다 ‘우암서(尤庵書)’의 암벽 시석 아
래에 시편의 형식으로 바닥에 놓여있다. 사각형의 테두리를 두르고 수려

15) 紅流洞次崔孤雲韻: 興來扶病入秋巒 身在煙嵐紫翠間 石上長松松下水 與僧相對夕陽山(『수촌집(水村集)』 권3)

16) 海印寺次崔孤雲韻: 毗盧故殿擁羣巒 學士遺題水石間 悵悵仙蹤無覓處 長留明月照青山(『한포재집(寒圃齋集)』 권2)

17) 紅流洞用孤雲韻口占: 九曲清川鎖疊巒 靈區物色隔人間 春來處處添奇賞 鏡裡瑤花畫裏山(『죽하집(竹下集)』 권2)

18) 紅流洞次崔孤雲韻: 斷續蒼崖接衆巒 百泉吼怒赴中間 孤雲遺句臨風唱 一抹紅霞映碧山(『연재선생문집(淵齋先生文集)』 권1)

한 초서체를 양각했다. “깎아지른 산등성을 끼고/ 여기저기 흐른 물이 한 골짜기로 쏟아진다./ 고운을 따라잡고 싶어도 여의치 않으니/ 지팡이 닿는 곳마다 텅 빈 산이 서글프다.”¹⁹⁾라고 했다. 마치 석벽의 시석 곁에 앉아 홍류동 계곡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텅 빈 골짜기의 풍경에 마음을 놓고 바라보는 것 같다. 그 곁에 자리한 또 한편의 차운시가 있다. ‘회암 정혜 근기(晦庵 定慧 謹記)’의 낙관이 있는 시다. 위의 시판의 형태와 크기, 서체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같은 석공(石工)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회암 정혜는 해인사와 증산면에 있는 청암사, 쌍계사에 주석한 스님이다. 유척기의 <유가야기>(1712년)에 “한 늙은 승려가 ‘묘향산에서 와서 산지 올해 75년 쯤’라고 하는데, 신이한 풍모는 쇠하지 않았고 말도 막힘이 없다. 도를 깨달은 것처럼 보이는 그 승려는 이름이 정혜(定慧)라고 했다.”라는 대목이 있다. 1712년을 전후로 해인사에 주석하며 후학들을 가르치던 시기에 이 차운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종현: 2015, 61). 시에 이르기를 “고운이 이 산에 들어왔다는 말 들었지만/ 신령스런 발자취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알 수 없구나./ 그곳이 눈을 뜨고 그의 거처를 찾고자 하는데/ 움직이는 것은 물이요 고요한 것은 산일 뿐.”²⁰⁾이라고 했다. 시인의 눈으로 최치원의 발자취를 더듬어 찾아보지만 보이는 것은 풍경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이해와 관념을 떠나 객관 대상으로서의 홍류동의 풍경을 그려낸 것이다. 최치원에 대한 의미는 없고 풍경은 단지 풍경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이상은 홍류동 문화경관을 실경의 풍경으로 재현한 시들이다. 시 속에는 깊고 고요한 풍경화가, 때로는 계절의 흥취와 함께 생동하는 홍류동의 풍경화가 그려져 있다.

19) 圈然炎削夾孺巒 百道流泉瀉兩間 欲逐孤雲攀不得 遊筇到處悵空山(『보장천추』 60쪽)

20) 聞道孤雲入此巒 不知靈跡依何間 謾將開眼看尋處 動者流川靜者山(2017년 1월 12일 필자 답사와 『보장천추』 61쪽 해석 참고)

(2) 주관적 심상의 구현

홍류동은 <제가야산독서당> 시석을 기반으로 문화경관이 형성되었다. 그러기에 홍류동을 찾은 시인들에게 최치원을 추억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따라서 작가는 풍경에 최치원에 대한 감정을 이입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그린 풍경을 시에 구현하기도 했다.

안명하(1682-1752)는 “삼청경 유수가 만첩 산에 흐르니/ 신의 공력 녹여 맺어 이 경치를 열었나./ 천년 세월 가도 고운의 훌륭한 자취 남아있으니/ 비로소 동국 최고의 명산임을 알겠네.”²¹⁾라고 했다. 경관의 아름다움을 삼청(三淸)에 비유하고 있다. 삼청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도교의 최고 이상향을 말한다.²²⁾ 홍류동에 와서 고운의 자취를 확인하고 나서야 이곳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삼청을 건주는 것은 이미 시인의 관념 속에 그려낸仙境(仙境)으로 대상을 시 속에 구현한 것이다.

심일삼(1615-1691)의 <가야산에 놀라갔다가 어촌 양훤과 최학사의 시에 차운함>에서는 “피리소리 광풍제월 가운데 들리고, 백학 한 쌍이 왔다갔다”²³⁾ 하는 풍경을 그리고 있다. 어디선가 피리소리가 들리고 학이 거닐고 있는 풍경은 ‘방장산이 가야산임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같이 선경의 상징적 표상들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광언(1620-1698)의 <홍류동에서 최고운 시에 차운함>²⁴⁾에서 ‘선인의 자취(仙蹤)’, ‘삼신산(三山)’, ‘선산(仙山)’ 등으로 표현한 것과 같다. 신좌모

21) 到紅流洞次崔孤雲韻: 三淸流水萬重巒 融結神功闢此間 千載孤雲留勝迹 始知東國擅名山(『송와선생문집(松窩先生文集)』 권1)

22) ‘삼청’은 도교에서 말하는 삼원(三元)의 화생(化生)인 삼보군(三寶君)이 관할하는 영역으로, 옥청(玉淸)·상청(上淸)·태청(太淸)을 지칭한다.(『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23) 遊伽倻山與楊漁村叵次崔學士韻: 閒驅快馬歷層巒 吹笛光風霽月間 白鶴一雙來又去 却疑方丈即倻山(『靑己世稿』 권3)

24) 紅流洞次崔孤雲韻: 洞門深邃刷重巒 疑有仙蹤秘此間 海外三山如可數 倻山應是一仙山(『光山世稿』 권3)

(1799-1877)는 “홍류동 빼어난 시구 푸른 산 압도하니/ 나보다 먼저 고운이 이곳을 찾았다네.”²⁵⁾라고 하여 <제가야산독서당> 시구의 품격을 통해 경관을 표현했다. 자신이 바라보는 경관의 아름다움은 곧 최치원의 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자신이 가야산을 찾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때의 산은 실경의 풍경으로 그려진 것이 아닌 자신의 심상에 있는 명산의 관념적 표현이다.

조금섭(1873-1933)은 “서른여섯 봉우리에 안개구름 서렸으니/ 천태산이 바로 이 사이에 있다고 말하네./ 부용 같은 만 첩 봉우리가 걸음 따라 바뀌니/ 어느 것이 진산인지 알지를 못 하겠네.”²⁶⁾라고 했다. 홍류동의 아름다움을 천태산²⁷⁾에 비유하여 선경임을 드러냈다. 김윤식(1835-1922)은 “백룡 머리 나란히 푸른 산 희롱하듯/ 우르릉 마른 우레 바위틈에 어지럽네.”²⁸⁾라고 하였다. 경관의 실경이 아닌 관념 속에 그려진 선경으로 구현하고 있다. 농산정 현판²⁹⁾에 전하는 노상동의 시에는 “나는 듯한 정자가 푸른 산에 있고/ 풍월과 연하는 수석 사이 있네./ 이곳은 선생께서 신선되신 곳이니/ 하늘과 땅이 드넓고 신령스럽네.”³⁰⁾라고 했다. 홍류동을 배경으로 하여 날개를 단 듯 솟아있는 농산정의 모습을 형상

25) 紅流洞用崔孤雲韻: 紅流秀句鎮蒼巒 先我孤雲過此間 道不得他詩一字 此身非是負名山(『澹人集』 권8)

26) 紅流洞用孤雲韻: 烟雲三十六峰巒 人說天台卽此間 萬疊芙蓉隨步換 不知那箇是真山(『巖棲先生文集』 권6)

27) 천태산은 중국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산으로 신선이 사는 산이다. 수(隋)나라 지의대사(智顗大師)가 머물렀고 돌다리인 천태석교가 있는데, 이 다리는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라야 건널 수 있다 한다.(『한시작가작품사전』 ‘영은사(靈隱寺)’, 국학자료원, 2007)

28) 雙龍瀑用崔孤雲韻: 白龍駢首戲青巒 虺虺晴雷亂石間 諸佛無言都掛口 鏡中人在畫中山(『雲養集』 권5)

29) 이구의(2006)는 농산정 현판시의 특징은 작가는 대부분 경주최씨 이거나 그 지역의 유지들이어서 단조로운 구성이며, 시의 대부분은 고운의 학식과 그의 세속에 물들지 않은 고고함을 추앙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특징은 현판시가 농산정의 중수를 기념하는 시기에 기획되어 지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30) 謹次龍山亭韻: 翼然亭子在青巒 風月烟霞水石間 點先生仙化處 天空地闊但雲山

하면서 경관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최치원의 선화(仙化)를 떠올리고 있다. 역시 선경의 관념적 표현이다. 이만상(1857-1899)은 “구름 위로 우뚝 솟은 산봉우리 드러나니/ 신선 세계 모두 다 이곳에 있네./ 끝내 홍류동이 속세로 가게 되면/ 어부들이 다투어 무릉산에 이르리라.”³¹⁾ 고 했다. 홍류동을 진나라 도연명의 일화가 있는 무릉도원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있는 홍류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무릉도원이라는 상징 세계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상의 시들은 실경이 아닌 주관적 심상에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끌어와 시 속에 구현한 경우다. 이들은 시인이 홍류동 경관의 아름다움에 취해있음을 의미한다. 이호운이 <가야산록>에서 겨우 홍류동 골짜기에 들어서기만 했는데도 “좌우의 봉우리가 어른거리는 것이 마치 신선의 영혼이 흔들거리는 것 같았다.”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마음 상태다. 유학자인 그는 여행 중에 최치원을 비난하며 여정을 이어왔다. 그런데 막상 홍류동에 이르러 보니 풍경의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히고 만다. 그래서 최치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선생은 신선이니 이번 여행을 방해하여 승경을 두루 보지 못하게 할까 두렵다.”고 했다. 홍류동의 자연 경관을 주관적 심상으로 구현한 이러한 태도는 홍류동 경관에 대한 찬사의 극치는 결국 선경이라는 관념세계로 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그 안에는 최치원의 선화(仙化)가 자리하고 있다.

2) 은둔의 가치에 대한 표현

차운시는 원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창작된다. 따라서 “세찬 물결 돌에 부딪쳐 온 산을 울리니/ 사람 소리 지척에도 알아듣기 어려워라./ 언제나 시비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렀네.”³²⁾라는 원시의 표현은 차운시 창작의 또 다른 소재가 되는 것이

31) 籠山亭次板上韻: 雲霞骨角聳層巒 瀛島方蓬盡此間 終使紅流塵世去 漁人爭到武陵山(『僑齋集』)

다. 따라서 차운시에는 원시의 은둔의식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은둔에 대한 긍정과 공감, 은둔에 대한 부정과 비판적 관점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은둔에 대한 공감

<제가야산독서당>의 주제의식의 핵심은 은둔이다. 그러기에 차운시도 은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시가 많으며 원시에 표현된 ‘농산(籠山)’이 핵심 주제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구의(2005: 254-283)는 최치원의 귀국 후 시세계를 ‘한국·탈속기’라 명명하고 ‘실의와 표랑’, ‘중관(中觀)의 세계’, ‘피안에서의 삶’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야산독서당>을 피안의 삶을 노래한 시로 분류했다. 이황진³³⁾은 최치원의 귀국 후 한시 작품을 현실에 대한 태도에 따라 4기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은거기로 보았다. 세 번째 시기는 은거에 들어가긴 했지만 세간과 완전히 격리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소극적 은거시기’라 명명하고 이 시기에 지은 시는 모두 6수로, 대부분 속세와의 연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거나, 온전히 탈속하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이해는 <제가야산독서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시석의 존재와 홍류동 문화경관은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내는 장소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주세붕(1495-1554)은 “참참 산중 팔팔 맑은 샘물 솟아나는데/ 본래 이곳은 신선의 세상이라네./ 고운이 한번 떠난 길 찾을 곳 없어서/ 단지 꽃

32)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33) 이황진(2014)은 『최치원의 귀국 후 한시 작품 연구』에서 최치원의 귀국 후 시세계를 신라로 귀국한 현강왕 11년(885)부터 왕이 서거한 887년까지 정치적 이상과 포부를 펼칠 준비를 하던 시기, 진성여왕 즉위년(887년)부터 아찬에서 물러난 효공왕 2년(898년)까지 외직에 있던 시기, 아찬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908년까지 소극적 은거기, 909년부터 속세에서 좀 더 멀리 벗어난 적극적 은거기 등 네 단계로 구분했다.

있만 물에 떠서 산에서 흘러나올 뿐.”³⁴⁾이라 하였다. 최치원의 은둔과 세상과의 영원한 결별을 원시의 청각적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다. 기대승(1527-1572)은 “환한 대낮 우렛소리 여기저기 산을 흔드니”³⁵⁾라고 하면서 최치원의 은둔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후세까지 영원히 기억됨을 표현했다.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공감은 윤순거(1596-1668)의 시³⁶⁾에 더욱 잘 표현된다. 세상과 차단된 은둔의 경지는 “천 겹 높은 절벽 첩첩 산중”과 “바위로 절벽을 만들고 무쇠로 산을 만들어” 세상을 벗어나려 했다는 것으로 표현했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말로써 은둔의 주체적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송광연(1638-1695)의 시³⁷⁾에는 “가마타고 천천히 첩첩산을 내려가서/ 온 종일 수석 사이 소요”하다가 “한 조각 외로운 구름”이 떠가는 것을 본다고 했다. 최치원의 은둔을 외로운 구름 조각과 동일시함으로써 경관에서 그의 은둔을 읽고 있다. 작자가 골짜기에 서성이는 모습과 최치원의 은둔을 동일시하며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박윤목(1771-1849)의 시³⁸⁾는 은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감을 드러낸다. “아마 속리가 날마다 산 찾을까 싫어서일까.”라고 하여, 무릉교가 끊어진 상태인 것이 마치 최치원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을 싫어해서 일부러 그리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무릉교를 세속과 단절된 신선세계로 가는 다리로 해석하고 있다. 이견창(1852-1898)의 시에

-
- 34) 題詩石次孤雲韻: 激激清泉疊疊巒 由來此地是仙間 孤雲一去無尋處 只有浮花流出山(『武陵雜稿』 권20)
- 35) 次崔孤雲韻: 雷霆白日動攢巒 流沫終歸碧海間 盈縮一機人不識 只疑泉脉發空山(『高峯先生文集』 권1)
- 36) 紅流洞次孤雲韻: 千重峭壁立攢巒 萬壑崩湍出世間 往事至今隨水盡 閑雲無語鎖空山 石作懸崖鐵作巒 爭流碧玉錦屏間 孤雲舊字今猶在 悵望千秋倚暮山(『童土先生文集』 권2)
- 37) 紅流洞次石上韻: 藍輿緩步下重巒 盡日逍遙水石間 一片孤雲歸洞壑 應隨學士過前山(『泛虛亭集』 권1)
- 38) 武陵橋次崔孤雲詩韻: 曲成蹊徑疊成巒 十里行過水石間 一斷仙橋無復續 似嫌俗吏日尋山(『存齋集』 권1)

“백길 홍류동에 만첩 산”³⁹⁾이라 하고 “아마도 선생이 아직 이 산에 계신 거겠지.”라고 하며 마치 은둔자를 가까이 느끼는 것처럼 하고 있다. 조공섭(1873-1933)은 “최선은 아직도 세상에 있는 듯해/ 시 속에서 사실을 다시 물을 필요 없으니”⁴⁰⁾라고 하여 최치원이 홍류동 선계에 여전히 은둔해 있다는 믿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홍류동을 ‘난새’와 ‘학’이 있는 신선세계로 표현함으로써 최치원의 은둔과 선화전설을 연결시키고 있다. 김녕한(1878-1950)도 “세상 시끄러움을 피해 푸른 산이 높이 솟아” “인간세상을 벗어났다”⁴¹⁾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농산정 위로 높이 솟은 겹겹의 산과 굽이쳐 흐르는 물을 통해 최치원의 은둔에 대해 공감하며 자신도 같은 정서를 느끼고 있다.

이상의 시들은 최치원의 은둔의식을 재현한 시들 중에서 은둔에 대한 긍정과 공감을 표현한 경우이다. 이들은 홍류동의 경관을 객관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 ‘겹겹의 산’, ‘세상과 선계’ 등 <제가야산독서당>의 표현을 차용하면서 시인의 눈으로 경관 속에서 최치원의 은둔의식을 읽어내고 그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은둔에 대한 비판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에는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면서 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시들이 있다.

이만부(1664-1732)는 “바위산 둘러서 한 골짜기 만들어내니/ 고목 사이 맑은 밤이슬 뿜어져 나오네./ 첩첩 바위에 성난 물결 흐르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구름 낀 산 이른 적이 없다네.”⁴²⁾라고 하였다. 이 시

39) 籠山亭次孤雲韻: 百丈紅流萬疊巒 神仙詩句墮人間 白雲一片孤飛去 疑是先生尙在山(『明美堂集』 권3)

40) 籠山亭用原韻: 鸞想飛流鶴想巒 崔仙猶似在人間 不須更問詩中事 還我千秋本色山(『巖棲先生文集』 권5)

41) 籠山亭次崔孤雲韻(『及遇齋集』 권7)

42) 紅流洞用孤雲題詩石韻: 裝成一壑簇巖巒 沆瀣吹噓古木間 不用狂濤奔疊石 世緣曾未到雲山(『息山先生別集』 권2)

는 <제가야산독서당>에 표현된 최치원의 은둔의식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골짜기가 깊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세상과 단절되는데, 굳이 최치원이 스스로 은둔이라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드러냄으로써 은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현했다.

송인각(1827-1892) · 송인호는 최치원의 은둔 태도를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고운이 이 산에 숨어 도를 들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람들 세상의 시비를 말하네./ 만약 그때 참으로 도를 깨우쳤다면/ 무엇 때문에 흐르는 물로 산을 감싸게 했겠는가.”⁴³⁾라고 했다. 여기에는 그가 완전히 깨우친 사람이 아니라는 입장이 담겨있다. 왜냐하면 깨달았다면 굳이 흐르는 물로 억지로 산을 감싸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초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도 세상의 시비가 있다는 그 시비의 내용은 바로 최치원이 진정 도를 들었는가에 대한 시비로 해석된다. 이 시를 “고운을 용납할 수 없었던 당시 사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이구의, 2005: 62)한 것으로 해석한 것은 세상의 말을 원시의 전구인 “항상 시비소리 들릴까 두려워”로 보고, 전구와 결구의 해석을 “당시에 참으로 도 깨우치게 했더라면/ 어찌 흐르는 물로 산을 감싸게 했으리.”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송인각의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서석화의 시⁴⁴⁾가 있다. 그는 농산정에서 2수의 차운시를 지었다. “궤궤 흐르는 맑은 샘 우뚝한 산봉우리/ 고운의 정자가 이 가운데 있네./ 선가의 귀에는 시비소리 들리지 않는 것이니/ 한결 같은 태고의 산 빛 길이 보존되어 있네.” 라는 첫 번째 시는 은둔하려 했던 최치원을 비판하고 있다. 선가(仙家)의 귀에는 시비소리가 원래 들리지 않는 법이라고 함으로써 최치원이 굳이 이런 곳에서 은둔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하여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구의(2007: 61)는 이에 대해 시냇물이 세차게 흐르는 가운데 정자가 서 있는

43) 籠山亭板上韻: 聞道孤雲隱此巒 至今人說是非間 若使當時眞悟道 何須流水更籠山
(『蘧觀聯芳集』 권1)

44) 紅流洞籠山亭次孤雲崔學士韻: 瀾瀾清泉轟轟巒 孤雲亭子此中間 是非不到仙家耳
一色長存太古山(『靑石文集』 권3)

것을 세과의 회오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지조를 상징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전구의 “선가의 귀에는 시비소리 들리지 않는 것이니”와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다. 오히려 홍류동이 선계이며 이런 곳에서 세상의 시비 소리를 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

이상의 시들은 최치원의 은둔의식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의 은둔을 비판한 시들이다. ‘어지러운 물소리’, ‘겹겹이 쌓인 깊은 산’, ‘세상의 시비’ 등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는 <제가야산독서당>의 은둔 의식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홍류동의 경관을 마주한 이들 시인은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결심을 오히려 세상에 대한 불필요한 집착으로 읽고 있다. 이로써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현한 시들로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가야산 홍류동의 시석(詩石)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홍류동은 최치원의 독서당과 시석으로 인하여 최치원을 환기하는 장소가 되고, 농산정, 치원대, 가야서당 등의 문화경관을 이루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서당이 퇴락하고 없는 자리에 그를 기리는 농산정이 세워졌고, 홍류동 암반에 최치원이 새긴 시석을 기억하기 위해 치원대(致遠臺)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으며, 시석의 마멸로 인하여 맞은편 암벽에 우암 송시열의 석벽시가 탄생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현장조사와 문헌고증을 통해 그동안 홍류동 시석의 위치와 내용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았다. 또한 홍류동 문화경관은 후대 시인들에게 최치원의 은둔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는 원천으로 기능했음을 밝혔다.

<제가야산독서당> 차운시는 최치원과 홍류동 문화경관에 대한 이해

에서 출발했다. 차운시의 특성은 경관을 드러내는 방식과 은둔의 가치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관을 드러내는 방식은 객관세계로서의 대상을 재현한 시와 주관적 심상으로서의 경관을 구현한 시로 구분된다. 객관세계로서의 실경을 그려낸 시들은 서경시의 특징을 보인다. 골짜기의 풍경과 높은 바위의 기이함은 객관 대상으로서의 홍류동 자체를 표현한 것이다. 반면 작자의 관념 속에 있는 심상으로 그려낸 홍류동은 선경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들을 사용했다. 이 유형은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관심 보다는 경관 드러내기에 중점이 있으며, 홍류동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체화하고 최치원의 선화(仙化)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다음으로 원시에 담긴 은둔의식을 재현한 시는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공감을 표현한 것과 그의 은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시로 분류된다. 이들이 최치원의 은둔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보이지만 <제가야산독서당>의 주제의식에 대한 관심에서 창작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세상과 홍류동을 단절된 세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원시의 공간의식을 재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차운시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시의 해석을 바탕으로 유형 분류를 하는데 그친 한계가 있다. 각각의 시가 지닌 미의식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은 차운시의 상호텍스트성 연구로 과제를 남김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문선』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

(2) 단행본

김건곤 외, 『동국여지승람 제영사전-군현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김건곤 외, 『동국여지승람 제영사전-산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심경호,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이구의, 『최고운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1995.

이무용,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문화정치론적 연구』, 문화다움, 2003.

임덕순, 『문화지리학』, 범문사, 2000.

장성진, 『옛시로 읽는 경남』, 도서출판 선인, 2010.

조동규, 『인문지리조사법 II』, 교학연구사, 1990.

존 앤더슨, 이영민·이종희 옮김, 『문화·장소·흔적』, 도서출판 한울, 2013.

중현, 『보장천추, 비밀의 계곡』, 해인출판부, 2015.

최준옥, 『고운 최치원선생 사적고』, 보림각, 1982.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9.

한국문화지리학회, 『현대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2013.

한국사학회, 『신라 최고의 사상가 최치원 탐구』, 주류성, 2001.

한정호 외 엮음, 『최치원이 그리운 시인의 노래』, 마산문화원, 2014.

해인사, 『해인, 가야산 해인사 답사자료집』, 애드넷, 2012.

황수영, 『한국금석유문』, 일지사, 1976.

(3) 논문

강학순·박찬석, 「기든스 구조화 이론의 지리학적 함의와 문화경관 해석」, 『지리학』 27-2, 대한지리학회, 1992, 129-147.

권선정, 「텍스트로서의 풍수경관 읽기」, 『문화역사지리』 21-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117-134.

김수태, 「최치원의 은거관념」, 『신라사학보』 38, 신라사학회, 2016, 353-386.

김은미, 「최치원의 삶과 시적 대응」, 『한국문학논총』 67, 한국문화학회, 2014, 5-44.

노성미, 「최치원 문화경관과 서사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창원지역 콘텐츠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1, 비교민속학회, 2016, 7-32.

류제현, 「한국의 문화경관에 대한 통합적 관점」, 『문화역사지리』 21-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9, 105-116.

박동백, 「합천 홍류동 고운 최치원의 제시석(題詩石)」, 『전라금석문연구』 20, 전라금석문연구회, 2013, 13-14.

안동준, 「최치원의 가야보인법과 현묘지도」, 『도교문화연구』 37, 한국도교문화학회, 2012, 47-73.

이구의, 「『농산정』 음영시(吟詠詩)에 나타난 최치원 인식(1): 그 현판시(懸板詩)를 중심으로」, 『신라사학보』 8, 신라사학회, 2006, 227-250.

이구의, 「『농산정』 음영시에 나타난 최치원 인식(2): 문헌에 실려 있는 시의 경우」, 『한국사상과 문화』 3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43-71.

이구의, 「최치원 문학의 창작 현장과 유적에 대한 연구」, 『대동한문학』 29, 대동한문학회, 2008, 11-44.

이석해, 「최치원 유적의 유형과 문화경관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 한국전통조경학회, 2005, 60-72.

이황진, 「최치원의 귀국 후 한시 작품 연구」, 『한국민족문화』 5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267-294.

장일규, 「최치원의 ‘仙’ 이해」, 『한국고대사탐구』 15,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3. 95-126.

장일규, 「최치원의 귀국 후 활동과 은둔」, 『사학연구』 76, 한국사학회, 2004, 57-83.

진종현,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대한지리학회, 2013, 557-574.

최영성, 「고운 최치원의 생애 재고찰, 생애의 중요한 몇 장면들」, 『한국철학논집』 51, 한국철학사연구회, 2016, 10-44.

<Abstract>

A study on the rhyme-borrowing poems of
〈Jegayasandokseodang〉*

Rho Seong-Mi**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he cultural landscape of Hongryudong valley in Gaya Mountain, Choe Chi-won's(857-?) seclusion place, and rhyme-borrowing poetry of <Jegayasandokseodang>. He entered the Gaya Mountain, lived in the reading house, wrote this poems and engraved them on the rock of the valley. The reading house and the poetry stone gave a symbol to the Hongryudong scenery and expanded and reproduced the meaning of Choe Chi-won.

In this study, the academical errors were corrected about the existence pattern of his poetry stone. The scenery of the poetry stone was researched through travel pieces like *Gayasanyuramrok*, the poetry for Gaya Mountain, the literature such as *Dongkukyeoziseungram* and field trips. Choe Chi-won's handwritten poetry stone is a rock called Chiwondae and it was carved in the square style of writing Chinese characters. It is confirmed by the literature in the 16th century that the letters have been worn out in the strong valley water for many years and only four letters have been recognized. After that, Wooam Song Si-yeol again wrote a poem in the cursive style of writing Chinese characters and this is the poetry stone at opposite hill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yungnam University Foundation Grant, 2016

** Kyungnam University

of Nongsanjeong. It was confirmed in the literature that there have been an engraver among Haeinsa monks.

It is confirmed until now that there be about 60 rhyme-borrowing poems of <Jegayasandokseodang>. Most of them are in collections of works, and 14 pieces are found in the Nongsanjeong board and the rock of Hongryudong. The creation of rhyme-borrowing poems starts with the recognition of Choe Chi-won and Hongryudong cultural landscapes. The characteristics of rhyme-borrowing poems are largely classified into expression for the aesthetic sense of the Hongryudong landscapes and recreation for the seclusion consciousness contained in his original poetry. The expression for the aesthetic sense about natural sceneries is represented by a fairyland. This is the result of embodying the beautiful Hongryudong sceneries and reflecting the perception that he became a hermit. The poems recreating the seclusion consciousness of <Jegayasandokseodang> express the sympathy of the poet facing the Hongryudong landscapes for Choe Chi-won. Therefore, rhyme-borrowing poems are interpretations for the Hongryudong cultural landscapes and the later interpretation for his seclusion.

Key Words : Choe Chi-won, Hongryudong, cultural landscape,
<Jegayasandokseodang>, poetry stone,
rhyme-borrowing poem, seclusion

■ 논문접수 : 2017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7년 8월 19일

■ 게재 확정 : 2017년 8월 21일